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 꿈수”

‘극한 대결’ 전국철도노조 파업 쟁점은

노조, 안전위협·요금인상·적자노선 축소 등 우려

정부·코레일, “체질 개선 방법일 뿐, 민영화 무관”

전국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4년 만이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 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 인지를 놓고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 시각차가 큰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이 지분 일부 조정과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 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말한 “지분을 41%로 확대하다”는 것은 연기금 등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며 “연기금 투자가 안 될 경우 정부가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점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며 경제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을 위한 거짓말 시리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매각 금지는 이미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이며, 코레일 또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변한 것은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노조의 투쟁을 헤석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 계열사라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첫날인 9일 광주시 북구 종합동 광주역 매표소 창구 옆에 무궁화호·새마을호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며 정부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 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 닌가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코레일은 또 “민영화 반대를 주 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고 강조했다.

노사간의 의견이 수서발 KTX 운영 회사 설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 서 현재로서는 약간의 합의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국제운수노련 (ITF) 스터디 코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 민

영화 등 국내 철도 관련 분쟁의 해 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 혔다.

서한에서 코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 하며, 가난한 지역 노선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은 한 국 철도산업을 사적자본의 이윤도 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면 ‘이슈진단’서 계속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지정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가 하면, 5·18 추모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 됐다. 결국, 박승준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 출석,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면서 지정 반대를 위한 명분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나라사랑정책자문위원회 등 의 부정적 의견만을 수렴, 기념곡 지정 불가 이유와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애초 기대와 달리,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블루 처럼 번졌다 서명 운동도 지난 5월 21 일 시작한 지 이를만에 1만6000명이 참여할 당시의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200일이 넘어간 8일 현재 3만 9900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받은 게 고작이다.

도를 넘어선 5월 왜곡·폄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도 잠잠해졌다. 겸활 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 물건으로 왜곡했던 누리꾼을 기소된 뒤에도 ‘일베’ 사이트에는 여전히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음두사미’라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5 월 광주 정신의 전국화·세계화 방안을 마련, 더 이상 5월 역사를 왜곡·비하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덮나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때문인지 애초 기대와 달리,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야 “고갈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한목소리

잔액 22억 불과… 교문위 100억 증액 추진

여야가 함께 고갈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에 나섰다.

참여정부 때 조성된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한때 300억원 이상의 자금으 로 운영돼 았으나 지난 이명박정부에

서 전입금이 대폭 축소돼 현재 기금 잔액이 22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지역신문발

전기금이 큰 폭으로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금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명

맥만 유지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난 5월과 7일 각각 개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

와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추가 확

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운

영과 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최근 들

여 정부의 의지와 정책 부족으로 불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지원은 0원으로 기금의 불안정성이 뚜렷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최소 50억원 이상 증액된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문위는 10~11일 예산소위를 거쳐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지역신문발전 기금 증액 여부를 최종 확정해 국회 예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문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케줄 바꿔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강사 파견 업무

K.L.E.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체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전화 062) 361-3515 양동지점 062-6164
각지점 010-9441-7000 풍암금호지점 06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